

눈에 보이는 잘잘못 따지며 허송세월 말고 인과에 매이지 않는 공부 하나씩 하세요

쓸데없는 욕심, 자기 분에 맞지 않는 욕심 말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도둑질인가! 남이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허허허. 부처님께서 히말라야의 산을 등감시켜 황금으로 만든다 해도 한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욕심을 경계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그 욕심은 청정한 본성을 덮어 버리지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몸통이 가진 이상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업을 하게 되죠. 그 생업을 할 때 생각을 잘 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양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열불하거나 기타 다른 공부를 해서 성불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직업을 가도 성불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수행을 위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 수행의 방편으로 공무원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또는 누구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니 일상 생활 중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고 또 수행의 방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공부해 나가기를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내 몸통이 유지하고 부처님 법 공부하는 방편으로 일상을 생각한다면-밥을 속이거나 뱃을 일도 없애고 저절로 욕심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간혹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만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서도 현실이 모두인 줄 알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양 알지 말고 인과법을 알아야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

는 풀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몇 년 살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인과를 풀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즉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옥을 가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고 인과에 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줄에 꿰어 돌아가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밭을 일구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 키우는데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돌아 오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 부모와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 생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어느날 지나가는 노승에게 울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들어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만드는 왕골을 한 다발씩 가져다 놔라" 하더군요. 그래서 노승님 말씀대로 해놓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또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리번거리다 그 왕골을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아내를 세 번 때렸답니다. 세 번을 때리고 나서는 한숨을 푹 쉬고 더 이상 안 때려요. 그 날 이후부터 때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 마부였던 아내가 말이었던 남편을 그 왕골 숫자만큼 때렸던 겁니다. 왕골의 결이 많으니 그 숫자를 모두 덮고 나니 더 이상 때릴 마음이 없게 버린 거죠. 인과의 법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치의 예누리도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생에서 부처 이루도록 노력 생활속 작은실천 모이면 가능”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잘잘못 따지며 허송세월 말고 인과에 매이지 않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모든 원인을 밝혀 알아서 풀어나가면 가장 근원을 푸는 방법이겠으나 잘 모를 때는 '원수를 친아버지처럼 섬겨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수라면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주어도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을 뺏아 가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 그 원인을 밝혀 알려고 노력하면 원수도 섬길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인과법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의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인과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

재 남편이나 직장동료나 이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좋게 마음을 못 써서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에서 오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을 알고 자 하는 발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어도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앞이 가려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스스로 수행해서 견성도하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복을 빌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을 비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가족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기도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불제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내 마음을 밝혀 알아 견성도하겠다는 굳은 발원과 정진, 신심이 뚜렷해야 합니다. 여영 부영 절

에 다니며 가족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뭐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해서는 부처님 법 근처에도 못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팔만사천 가지가 있습니다. 팔만사천 법문이 문문기암이라 했어요. 팔만사천 법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곳으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선, 염불, 독경, 절 어느 것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받으면서 욕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법화경>에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 상자적멸상(常寂滅相) 불자행도이(佛子行道已) 내세득작불(來世得作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적멸한 법이어서 불자가 도를 행해 마치면 이 세상에서 부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내세'를 다음생이라고 새기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천년에 다음생을 기약하면서 공부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본래 적멸한 법을 깨우쳐 지금 이 세상에서 열반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도록 발심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삼승에서 부처를 이루고 극락을 이루도록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충실히 행해나가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담·최희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꽃돼지” 스님

산중의 겨울밤은 참으로 길기만 했다. 이른 저녁공양을 마치고 나면 예불 간경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어느새 삼경(밤 아홉시) 종소리가 조용한 산사의 밤하늘을 때렸다. 이제 취침 시간이다. 바깥 마을에는 아직 초저녁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었지만 불거진 산중에서는 꽤 밤이 깊은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술을 배가 고프기 시작할 시간이다. 이르게 먹은 저녁공양은 따뜻한 공양 죽비소리에 시간맞춰 먹는다 해도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화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 전이다. 때문에 지대방에 한해 밤 열 한시까지 주어지는 개인학습 시간에는 낮에 요령껏 꼬불쳐 둔 간식거리를 소매밑에 숨겨 행어 누가 불새라 책속에 얼굴을 푹 파묻은 채 먹는 맛이랄 정말 끝맛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의 짜릿함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 중 하나다. 간식거리가 풍족하지 않을 때라 거의 매일 이다시피 누룽지가 유일한 간식거리가 되었던 날들의 이야기지만 이것도 동작빠른 스님이라야 쟁길 수 있었다. 행자님들의 공양푸는 시간에 맞춰 미리 공양간 한켠에 서서 대기하고 있으면 상행자가 앉았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누룽지 한술을 주걱으로 주욱 갈라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주곤 했다. 그걸 개인 관물함에

러 노력하던 스님이였다. D대 사학과를 졸업한 이 스님 웃기는 행동만큼이나 출가사유 또한 대단히 이채롭고 재미난다. 대학졸업 후 친구들과 무정여행을 했었다. 그렇게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 환장할뻔했다. 차마 짐 많은 체면에 구걸은 못하겠고 머리를 짜내 피를 쓴 것이 마침 출가한 친척누님이 가까운 절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법당의 보시함을 털기로 작정하고 절에 들렀다가 그길로 내친 김에 더 큰 도둑(?)이 되기로 결심하고 식발 출가하였으니, 여하튼 그 과거성품은 출가전부터 있었나보다.

이 스님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 도반들이 무심중에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토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써먹는다고 해서 '공포의 삼겹살'로도 불리우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그러나 이 스님, 도반들이 선방에 한 두철



재치·웃음으로 도반즐거게 공부 앞만보고 독심정진

숨겨 두었다가 깊은 밤중에 몰래 먹는 맛이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누룽지를 이빨로 부숴 먹으면 그 '오도둑' 소리 때문에 혹 상관스님께 들릴까봐 입 속에 소리가 없도록 잘라 넣고는 침으로 소리 없이 녹여 먹곤 했다. 급한 마음에 가끔씩 그냥 삼키면 덜 녹은 누룽지가 목에 걸려 따끔한 쓰라림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도 마냥 좋지만 했던 사설의 이야기다. 당시 강원한울 수렁비가 이만원이었으니 그 돈으로 책 한두권 사면 남는게 없었던 터라 자연히 공부도 좋지만 먹을 것을 더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도반중에 '꽃돼지'란 별명을 가진 스님이 있었다. 유난히 든든한(?) 몸집에 잘 웃긴다 하여 생겨진 별명이지만 그 덩치를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먹을게 많이 부족한지 부족했나 보다. 어느 날 이 스님께서 사시공양 후 식곤증을 못 이겨 졸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졸다 깨우려 노력하니 지대방 한가운데 큰 조리종 하나가 보였다. "아니, 조리종?" 이 스님, 누가 쳐어 갈래라 열른 집어 입안에 넣을 듯 들어 넣었는데 "이게 무슨 맛?" 달콤한 과자 맛 대신 입속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간식거리 귀한 때에 방바닥에 조리종이 떨어져 있을 리 만무. 그 스님은 조리종과 모양이 비슷한 발을 삼켰던 것이다.

입술이 흥분부터 올라 만둣고기 된 채 몇 날 며칠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이 스님, 도반들이 놀려 대자 "진짜루 내눈에는 조리종으로 보였나니까" 자중적인 항변과 유머있는 재치로 그 와중에도 대중스님들을 즐겁게 해 주

살면 그만일 것이라고 놀려댔지만 정말 발심이라도 한건지 강원졸업 후 여태 동안거 하던 거 모두 갈게 들어가 몇 년 동안이나 여법하게 정진하고 있으니 모두가 부끄러워 했다.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면 항상 천진하고 익살맞은 행동으로 도반들의 여가시간을 즐겁게 해주고 서먹해진 도반관계를 재빠른 재치와 웃음으로 화합하게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추호의 흔들림 없는 독심으로 정진하고 주변사람들의 사소한 아픔까지도 보이지 않게 챙기며 위무해 줄 줄 아는 스님이라는 걸 알게된다. 그래서 도반들 사이에 인기 '짱'이다.

얼마 전 해제철에 여기저기 다닐 곳 많은데 버스타기 타면 시간을 너무 뺏긴다고 해제금 떨어 거금 오십만원 주고 고물차를 한 대 샀다. 차를 운전할 때도 그 성질 그대로 절대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차는 오직 앞으로 가기 위해 있는 거라며 앞으로만 운전할 줄 아는 스님. 그래서 자신의 공부도 절대 뒤돌아보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다. 위대할 성품으로 오늘도 스승의 숲길을 묵묵히 헤쳐나가고 있을 스님. 올 동안거 해제철에는 진짜 부처의 법을 출친 큰도둑(?)이 되어 '할'소리 한번 하시길...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Advertisement for 'Shinshik Gyeongjeong' (신식 경정콩)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IMF Diet' (IMF 다이어트 인기 급등) featuring a diagram of a joint and text explaining the diet's effectiveness for weight loss and health.

Advertisement for 'Tae Kwon Do Winter Training' (禪武道 겨울 수련회) including a schedule of activiti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